

# 윤 대통령 “스위스와 첨단과학기술 협력 강력 모색”

### 스위스 방문 첫 일정 동포 만남 글로벌 CEO 20여명과 오찬 “한국 세계 최고 혁신허브 만들 것” 오늘 다보스포럼 특별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오찬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일정에 들어간다.

일명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WEF 연차총회는 주요 정상들과 학계, 시민사회 리더들이 모여 국제협력을 논의하는 민간 국제회의로, 이번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다. 우리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 시내의 호텔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CEO와의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의 주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디지털 전환·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글로벌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내의 글로벌 기업 CEO 20여명이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우리 측에서는 삼성전자·SK·현대차·LG·롯데·한화솔루션 대표가, 해외에서는 인텔·IBM·퀄컴·JP모건·무비탈라·블랙스톤·뱅크오브아메리카(BoA)·비스타에쿼티파트너스·히타치·셀·에어리퀴드·토탈·네슬레·TPG·리포 등 15개 업체 CEO가 참석한다.

윤 대통령 순방에 동행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박진 외 교부 장관 등 각료들도 배석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글로벌 CEO들에게 한국 기업과의 협업 및 한국 투자 확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9일에는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 방안을 제시하고 한국의 역할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방문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을 만나 양국 교류강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취리히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동포간담회에서 “올해는 한국과 스위스가 수교한 지 60주년을 맞는 해”라며 “양국이 그간 다져온 신뢰와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60년을 향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경쟁 시대를 맞이해서 스위스와 같이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기술 선도국들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강력히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53년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표단을 파견한 이후로 스위스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스위스와의 교역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동포사회에 대해서도 “이미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며 “1919년 어느 익명의 한국인이 스위스 일간지 기고를 통해 유럽에서 대한독립의 가치를 높였다”고 언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취리히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스위스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축하공연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힘 지지층 당 대표 적합도 김기현 의원 오차범위 밖 선두

### 나경원 2위·안철수 3위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3·8 전당대회 당 대표 적합도에서 김기현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서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4~16일 전국 국민의힘 지지층 397명을 대상으로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이 35.5%로 1위를 차지했다. 나경원 전 의원(21.6%), 안철수 의원(19.9%) 등이 뒤를 이었다. 직전 조사(12월 27~29일)에서 15.2%를 기록

했던 김 의원 지지도는 이번 조사에서 20.3%포인트(p) 올랐고 나 전 의원은 9.2%p 내렸다. 안 의원은 0.4%p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RDD 방식으로 응답률은 1.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또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이에서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4~16일 국민의힘 지지층 836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김 의원이 3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나 전 의원(22.8%)·안 의원(15.4%) 등이었다. 휴대전화 100% RDD 방식 자동응답시스템

(ARS)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응답률은 3.2%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알앤씨씨가 뉴스핌 의뢰로 이달 15~16일 국민의힘 지지층 4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김 의원이 35%로 선두였고, 2위는 나 전 의원(23.3%), 3위는 안 의원(18%)이었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 방식 자동응답 시스템(ARS)으로 응답률은 2.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금융위,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 제재 재개

### 심의 중단 결정 9개월여만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사모펀드 부실판매 관련해 그동안 심의를 잠정 보류했던 제재 안건들의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심의 중단을 결정했던 지 9개월여 만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 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과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지난해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재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앞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사유로 이들 금융회

사에 업무일부정지 등 기관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들 CEO 징계안과 연관된 사안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말 이후 심의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제재 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중단 사유를 설명했다.

금융위가 심의 재개에 나선 것은 최근 대법원 판례 확립으로 제재 판단 기준을 둘러싼 법리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최근 우리은행 해외금융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그동안 선고된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나경원 신년 인사회 일정 취소 ‘잠행모드’

### 비난 성명 초선 의원 급증 사면초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이 다시 ‘잠행 모드’로 들어가는 분위기다. 나 전 의원은 18일 참석이 예정됐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 일정 등을 전면 취소했다. 대통령실 입장문에 대한 직접 반응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그동안 나 전 의원은 거세지는 친윤(친윤석열)계의 불출마 압박 속에도 ‘1일 1건’ 이상의 공개 일정·메시지를 이어오며 정치권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를 두고 사실상의 당권 행보

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전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문 이후 잠시 숨을 고르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전 행사 등 일정 취소와 관련해 “(나 전 의원은)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자신의 거주 문제로 논란이 빚어진 상황에 대해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초선 의원들이 자신을 맹비난한 성명의 연명자가 이틀째 늘고 있고, 재선 그룹도 비판 성명을 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나 전 의원의 고심은 더 깊

어진 전망이다. 초선 성명에는 이들 차인 이날까지 총 50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나 전 의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시각이 짙지 않다.

나 전 의원 주변에서는 내부 갈등의 원인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경계하는 가운데 이를 출마 여부와 직접 연결 짓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온다. 나 전 의원은 통화에서 “다양한 형태로 갈등을 진화하고자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출마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물론 ‘나 전 의원이 끝까지 압박감을 버틸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애초 나 전 의원이 입장 표명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윤 대통령 귀국(21일)까지 시간이 아직 며칠 남았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 전원 리모델링
- 칼라강판 지붕공사
-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 전원주택신축
- 공장신축
- 징크판넬시공
- 창호(샷시)교체
- 농막
-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